교수기고

창당 일년 맞은 민자당 관계자에게

'民주·自유'의 길로 돌아가시오

집권당 총재의 시국관

민자당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듣자하니 '나라를 건지겠다는 일념으로' 몇몇 야당과 손잡고 새당을 만든지 벌써 1년이 되었다지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강경대군의 죽음으로 촉발된 정치적 난국을 걱정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엄청난 국민의 항의시위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돐잔치에 축하를 드리고 싶은 기분이 아닙니다. 어깨춤이 나와야 말이지요. 번지르르한 인사치레보다는 쓰더라도 약이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으로선 더 필요할 것 같군요. 겸사겸사 몇가지 궁금한 점 질문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숨져간 젊은이들을 보고 귀당의 총재이자 대통령께서는 공식석상에서, "민주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빚어진 강경대군 사건은 과거 민주화투쟁과정에서 있었던 회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셨다지요? 이러한 보도를 믿고싶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그러니까 민주화의 대업을 이룩하신 날짜가 정확히 1991년 몇월 며칠이던가요? 과문한 탓이라 정확한 싯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완수 선포식'이라도 거행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요컨대 당신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민주화가 성취되었으니, 더이상 민주화를 빌미로 한 항의는 있을 수 없다는 뜻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요 역사를 두려워할줄 모르는 실언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는 3여년전 6월에 큰 결심을 하신 분으로서 이러한 발언을 하신 것이 결코 본의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비민주적 요소가 난마처럼 얽혀 꼬일대로 꼬여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개인이 제아무리 위대한들 어찌 이런 걸음으로 3년만에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기네스북에나 오를 얘깁니다. 결국 당신은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신다는 얘긴가요? 그게 아니라면, '잘 알고는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이정도 수준도 감지덕지야'라는 뜻인가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러한 언사를 심히 불쾌히 생각합니다. 현재가 과도기임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당신이 제시하는 비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집권당의 총재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신의 철학(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국민으로서 절박한 심정에 빠집니다. 결국 최고책임자의 사고방식이 이러하기에, 처참하게 스러져간 노동자의 주검을 영안실의 콘크리트벽을 깨부수고 탈취하려는 발상이 나오고, 검찰이 국가보안법 개정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잇단 젊은이의 죽음 앞에서도 '배후세력조사'라는 천인공노할 망발도 서슴치 않는 것입니다. 뭘그리 힘들여 조사를 하십니까, 분신의 배후는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권력의 주변

귀당의 운영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한사람은 '권력을 잡으려면 나처럼 투쟁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뽐내고, 다른 한사람은 이를 받아 '민주화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얘기'라고 젯밥 이야기나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거기다 '민족의 태양'으로 추앙을 받는다는 분을 포함하여 철두철미 지역감정을 내세우는 기득권방어세력들까지 끼어들어 3파전을 벌이니, 국민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이란 것을 시작하고도 범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전쟁선포를 기다렸다는 듯이 권력형 범죄가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학문전에선 죄없는 젊은이들이 적과 아군으로 나뉘어 허구헌날 시위와 진압으로 피를 흘리니, 국민들이 정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기적일 뿐입니다. 그뿐인가요? 유신시대의 돌격부대들에게 나라와 수도의 살림을 맡기는 것이나 보안부대장을 하던 사람에게 내무부장관을 맡기는 태도는 참으로 국민을 얕잡아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몇세기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정치는 분명 아닙니다.

맑을 수 없는 아랫물

위가 이 지경이니 거기에 붙어 한자리 하겠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성실성은 물론, 정직성마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혼탁한 분위기는 사회전반에 불신과 부정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무공무원들이 줄행낭을 치고, 검찰에서도 받아먹은 액수가 5백만원 이하이면 문제삼지 않기로 했을까요? 민주화가 다 이뤄지면 세금쟁이 없는 세상이 이렇게 오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 사업하는 사람치고 정치인이나 관에 줄을 대거나 돈을 먹이지 않고는 꾸려나가기 어렵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상탭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물론 나아진 점도 있지요. 전에는 갖다 바쳐야 했는데, 요즘은 찾아와 뜯어 간답니다. 시간이 절약되지요. 참으로 통탄할 구조악입니다.

언필칭 교육은 백년대계입네 하면서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1,5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고도 버티는 정권은 아마 지구상에서 당신네들 뿐일 것입니다. 이제 또 몇천명을 제단에 올리시렵니까? 선생님들의 지위를 정하는 법을 만들면서 위원장이 예비의사봉을 감춰다니며 날치기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민주화를 끝낸 나라의 입법절찹니까? 민주화를 이루면 기업이 근로자들을 죽도록 부려먹고 산업폐수 버리듯 몰래 내다버려도 되는 겁니까? 민주화를 다 이루고나면 경찰이 젊은이들을 때려죽여도 되는겁니까? 그러고서도 의기양양한 당신네들은 도대체 어는 별에서 떨어진 사람입니까?

새로 태어나야 한다

당신들은 우리의 임시고용인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우리가 맡긴 것임은 인정하시지요? 이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왜 천년만년 여당만할 듯이 개혁을 한사코 거부하십니까? 개혁하겠다는 것은 당신들의 굳은 약속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날치기라니요,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생색은 내시지만, 얼마전 검찰청법개정때도 비슷한 논리를 폈었지요. 그래 지금 검찰의 독립성에 흡족하신가요. 안기부법은 왜 빠졌나요? 개혁입법의 날치기 통과직후 대통령께선 총무에게 격려전화를 하고 국회운영솜씨를 칭찬했다지요. 누가 다음에도 꼭 찍어 준다고 당신네들 좋아하는 '각서'라도 써 줍디까? 말이 났으니 말이지, 각종의 정보기관과 공안검찰이 없었더라면 나라가 망했을까요? 걸핏하면 불순세력을 들먹이시는데, 도대체 그러는 당신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들이 안보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고작 '정권'의 안보였을 뿐, 그 월권의 해독과 원성으로 국가에 끼친 누는 실로 엄청나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음을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그 방대한 조직이 무슨 일을,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기관이 우리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사실 뿐입니다. 월급 좀 더 올려달라는 근로자는 거칠게 내려치면서, 얼마나 장한 일을 했다고 그네들은 예산을 왕창 늘려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십만평의 그린벨트를 내어줍니까? 숲좋고 공기 좋은 으리으리한 시설이 아니면 일이 손에 안잡히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안전을 기획토록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원진레이온이라는 공장을 한번만이라도 들러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정보기관 운영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권력의 폭력에 회생된 양심수를 위해 쓰고, 그런 숲이 있다면 온몸으로 우리경제를 꾸려온 산재환자나 직업병환자의 요양시설로 쓰십시오. 요컨대 국민을 섬기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니될 싯점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기부가 귀당의 구성원이 호주머니를 털어 모은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과감한 민주화조치야말로 나라도 살리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야당이 놀랄 정도의 개혁을 하고 야당하겠다고 나서십시오. 그것이 한수 더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도 달리 볼 것입니다. 물러나면 믿을 데라고는 국민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녕 이것은 아닙니다. 속고 또 속아도 믿어보자는 순해 빠진 백성들을 당신네들이 끌고 가려는 곳은 어느 벼랑끝입니까?

거듭된 부정·실정은 사회적 불신 확대재생산

국민의 권력빌린 임시고용인임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바라는 것

민자당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기름지고 호사스럽게 살지는 못해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전셋집 못 구해 목을 맨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까? 그런사람들이 단칸방에라도 발뻗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은 고속전철을 타지 않고 기꺼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낙으로 삼던 연속극도 비위거슬린다고 못보게 하면 도대체 우린들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도 정치인더러 천사가 되라거나 예술적 경지(이것도 능력에 따라서는 못할 것도 없지요만)를 보여달라고 주문할만큼 세상물정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상식선에서 국사를 이끌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조차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도 정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당장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넉넉하게시리 한번 살아보고 싶소. 야합. 말장난도 없고 쇠몽둥이도, 최루탄도 고문도 없으며 나아가 그보다 더 고약한 사찰과 공작과 음해와 쥐어짜는 폭력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대접받는, 부자가 존경을 받는 그런 세상 말이외다. 당신네들은 하고 싶은대로 다하고, 우리더러는 '원천봉쇄'하노니 그저 숨죽이고 시키는대로 따라만 오라는 건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요?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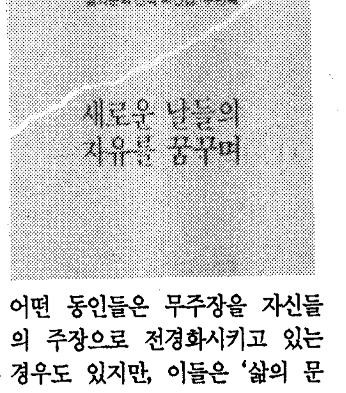
당신들의 천국

적어도 지금대로라면 이 땅은 당신네들에게는 천국일런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지옥입니다. 결국 당신들이 기여한 것은 거듭된 부정과 실정으로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나아가 양순한 국민을 완력으로 휘몰아 격분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한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폭력과 증오심에 뿌리박은 권력의 농단에 시달려 탈진상태랍니다. 부도덕하고 무능한데다 강경하기까지 하니, 3박자를 고루 갖춘셈인가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모두 선택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民주. 自유'를 위하여 창당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더 늦기 전에 당신들이 섬기고자 맹세한 국민의 고통을 직시하여 큰 단안을 내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유월을 기다려야 합니까?

김 성 태
〈법대교수·법학〉

'삶'홍수속 부족한 현실성

서 평



'삶의 문학' 동인집 '새로운 날들의…'

"삶의 문학"동인들의 두번째 시선집이 나왔다. "삶의 문학"동인들은 이미 여덟권의 동인지를 묶어낸 바 있으며, 이번 시선집에도 무려 스무 명의 시인들을 선보이고 있는 막강 대군단이다. 주로 충남지역의 출신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우리 나이로 마혼살에서 스물 네살에 이르는 동인들치고는 비교적 광범위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인 형식의 모임이 그렇듯이 이들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주장들을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동인들은 무주장을 자신들의 주장으로 전경화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삶의 문학'이 바로 그들의 문학임을 충청도식(?)으로 어눌하게 그러나 그 문학적 실천에 있어서는 매우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도대체 인간의 행위(정신의 영역까지도 포함하여)치고 '삶'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다시 역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죽음'의 반대 개념인가 아니면 우리가 통상 '인생'이라고 말하는 바 '사람들의 삶'인가? 혹은 더 세분하여 '역사적 삶, 회생적 삶, 추상적 삶, 치욕의 삶, 승리의 삶, 교사의 삶, 농민의 삶, 민중의 삶…'인가? "삶의 문학"동인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적어도 이번 시선집의 머리말에서 드러나는 바를 추적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담론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바 '삶'이상의 혹은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 그만큼 이들의 삶의 개념은 원론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들은 이 원론성 만큼의 진리에 근접해 있고, 동시에 이 포괄성 만큼의 허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이들의 장점은 문학도 다른 모든 인간의 행위와 다를 바 없이 구체적 삶속에서 생산되어지고 또 그 구체적 삶 속으로 끊임 없이 다시 되돌아간다는 '상식'의 엄중한 확인에 있다. 이같은 상식이 소중한 이유는, 문학의 영역을 지나치게 신비화하고 경전화하면서 끊임없이 구체적 삶의 현장으로부터 도망치려하는(왜냐하면 그들이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것과의 건강하고 숭고한 싸움을 벌려나가기에 현실은 너무나도 환멸스럽거나 '불가해한' 대상이므로) '몰상식'한 문학 동아리들이 아직 우리 주위에 만연되어 있다는 상대성 때문이다. '순수'혹은 그밖의 여러 수식어로 위장된 이들의 논리가 궁극적으로 안이한 현실도피의 자기 위안의 틀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삶'(그렇다, 그것도 분명히 삶의 한 방식이다)의 한 방식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구체적 삶의 현장으로 우리 문학을 끌어 내리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삶의 문학"동인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원론적인 진리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모호한 삶의 개념, 경험의 한계 드러내

과학적 세계관 의한 형상화 이뤄야

그렇다면 그 포괄성에서 오는 이들의 허점 혹은 약한 고리는 무엇인가? "삶의 문학"동인들은 구체적 현장성에서 절대 이탈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각 개인의 한정된 경험적 삶의 테두리에 지나치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에게 갖게 만든다. 이번 신작집에 작품을 발표한 거의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들이고 스무명중 반수 이상이 현직 혹은 전직 교사들이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절대적이지는 않아도 일정정도 이들의 경험의 폭을 제한시키고 있다. 백여편을 상회하는 많은 작품들 중에서 현단계 한국사회(혹은 '삶')의 중요한 모순의 집약지인 노동현장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거의 한편도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경험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히 인텔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통로는, 과학적 세계관의 확립 혹은 세계관상의 한계를 뛰어 넘는 탁월한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같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미안하다, 예외적인 몇 개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삶'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상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올바른 삶이 지향하는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에 실패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말마따나 "문학은 과학과 얼마간 다른 인식체계"이고 "과학적 방법을 문학적 방법으로 손쉽게 환원"(머리말)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과의 관계에서 문학에 부여되는 능동적 세계인식과 실천의 영역이 단지 "삶속에서 삶을 통하여 삶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 문학"(머리말)이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얼버무려져서도 안될 것이다.

오 민 석
〈영상문학연구회 회원〉

과학 아이디어가 생활 아이디어로 - 신화테크

(주)신화테크

너 셀피아 달았지?! 정말 니 방에만 울렸니?! 와! 근사하다!! 밤 12시에 아무도 모르게 통화할 수 있으니 말야!

젊음의 통화법 - 셀피아

젊음은 통화에서 마저 자유롭고 싶다!

540-1521-11
마지막 두자리수가 주는 통화의 자유 - 셀피아

젊은이에게 대화란
마치 산소와 같은 것 -
자유로운 밤의 대화를 위해
내 방의 전화기 만으론
이제 만족할 수 없다!
나만의 전화번호를 갖자!

셀피아 -
셀피아는 기존의 전화번호에
두자리수의 추가 코드번호를
부여하므로 나의 전화는
셀피아를 부착한 내 방의
전화기에만 벨을 울려줍니다.
셀피아 - 바로 통화의 자유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관심있는 대학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364-6570

●보급 특가 판매 실시
젊음의 축제를 맞아 특별 판매를 실시합니다.
(구입시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세요)
구입처: 본사(540-1521~3, 547-2031~2)
이대앞 지노바디(312-5200)

(주)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영어사 외국어학원
(旧 현대 외국어학원)
TOEIC 강좌개설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国語
●TOEFL ●TOEFL L.C. ●Voc. 22,000 ●영작문 연구 ●성문 종합영어 ●AFKN 청취 ●성문 기본영어 ●표현영어연구
●Word Power ●영어순해·독해 ●Time ●영어실력기초 ●실전수험영어 ●한인회화 ●미인회화
●일본어 초·중·고급 ●일본어 초·중·고급회화 ●일본어 독해 ●NHK청취 スクリーン ●중국어 초·중·고급 ●중국어회화
개강 6월3일 수시등록
파고다공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4395~7/5081~2

육군참모총장 위촉처
軍·행정병 모집
●행정병 주특기 부여
●매월 단독 입영
●6주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유사 학원주의
⊙사무자동화(OA)병
⊙차트(일반행정병)
⊙타자 행정병
관인 인성학원
730-6946~7
관인 유니타자학원
735-2323,9716

일본어 특별연수

일본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日本의 랭귀지스쿨프로그램을 도입한
일본어 문화원의 특별연수에
참석하시어 이미 국제어로 떠오른
일본어를 마스터하십시요.

◆교육대상
① 통역가이드 및 통역 희망하는 분
② 일본어를 처음 해보시는 분
③ 회화 위주로 배우고 싶은 분

◆장소 : 문의와 등록은 종로 본사에서 하시고 강의는 종로2가(제1연수원), 강남(제2연수원), 인천(제3연수원)에서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시간 : AM 7 : 00-PM 10 : 00

◆교육과정 : 6단계 정규과정

초급	1단계	일본어의 기초문법 및 기초회화
	2단계	기본능력 배양 및 기초학력 마무리
중급	3단계	일반회화, 구문이해, 원서독파능력 함양
	4단계	상황별로 대처하는 회화테크닉 구사
고급	5단계	고도의 의사능력을 후리토킹으로 진행
	6단계	실전위주의 회화진행

접수처 : 종로2가 일본어문화원 본관 5층 교육부
연수담당 김 정 미
Tel. 722-4183. 737-6590~1
日本語文化院